

익산 서동축제 막 오른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모더나2’

지역 체류형 축제로 변화 시도... 야간관광 아이템 발굴



백제의 역사가 담긴 익산의 대표축제 '서동축제가 금마 일대를 환하게 물들인다. 금마의 빛과 물'을 품은 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즐거움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특히 더 많은 관광객이 오랫동안 체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오후와 심야시간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야간 관광 시대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익산 서동축제는 역사가 깊은 무왕제대로 화려하게 막을 연다.

초현관은 정현을 시장, 아현관은 최종오 시의회 의장 등이 맡아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서동취타대를 선두로 60여명으로 구성된 행렬단이 어패를 옮기는 과정은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다. 개막행사에 다채롭게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만큼 풍성한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의 주인공을 찾는 어린이 서동·선화 선발대회, 야간경관 점등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서동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스토리를 입힌 백제 유등 전시다.

서동의 생애, 특히 무왕의 즉위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엮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토리가 담긴 유등 약 60점이 서동공원 곳곳에 전시되며 금마저수지는 해상왕국 백제의 꿈을 담은 LED 돛배가 빛을 발한다.

서동공원부터 금마저수지까지 축제장 곳곳을 수놓을 유등 전시는 밤 11시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은 낮부터 밤까지 축제를 오롯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빛과 함께 물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

색 공연도 눈길을 끈다. 축제 기간 사흘 동안 매일 밤마다 금마저수지에서 '수상실경공연'이 개최된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색 공연으로 물과 자연을 실제 무대 배경으로 활용해 물의 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시켰다.

이밖에도 서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각종 공연과 서동요 전설 백제무사, 키자나 직업체험 열기구 체험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이 한가득 준비됐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낮부터 밤까지 지역에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했다. 전국 규모의 대형 유등을 보유하고 있는 시는 아름다운 빛에 백제 역사를 입혀 새로운 야간 관광 아이템을 발굴했다.

화려한 야간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을 대폭 강화하는 등 축제 프로그램을 오후와 심야시간대 집중시키면서 체류형 관광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시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11월 13일까지 유등 전시를 연장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관광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점으로 야간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인원 제한 없는 축제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이번 서동축제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됐다"며 "이를 통해 백제 왕도 익산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개량백신 10월 11일부터 접종

군산시는 29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 2가 백신 접종을 10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더나 2가 백신은 개량 백신으로 코로나19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A.1)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mRNA 방식의 백신이다. 해당 백신은 기존 모더나 대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1.2배, 오미크론(BA.1)바이러스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을 보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접종정책이 기존 치수 중심(1~4차 접종)에서 시기 중심으로 전 환함에 따라, 1·2차 기초접종 완료자

는 최종접종 치수와 관계없이 2가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나 mRNA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 스키퍼코비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이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로 10월에는 △면역저하자, △김영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농수특산물 LA 한인축제 참가 큰 호응

군산 우수농수산물에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군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 까지 4일간 미국 LA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49회 LA한인축제 및 제6회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군산 지역 6개 업체가 참가해 현지인과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홍보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한 이번 엑스포에서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박대·조기, 조미김, 꽃게장, 고추장, 된장, 어간장, 젓갈류 등을 선보이며 군산의 우수한 맛을 알리고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참가했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지난 2019년 판매액 2억4천만원을 훨씬 뛰어넘은 3억 3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김판근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문화예술인과 문화도시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이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29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된 '2022 익산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 익산예총, 익산민예총, 대학재학 중인 예비 문화예술인 등 약 100여 명과 '문화에 물드는 익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도시조성사업 설명에 이어 예술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익산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서로 다

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원로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과 서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이 넓어져 익산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와 예술이 도시의 경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성과관리·평가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김영준 군산시장 주재로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소장 및 부서장 등 15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된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 수행 현황, 평가체계 구축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신기현 교수(책임연구원)는 용역을 통해 시민 만족도 조사 등 다수의 정성적인 성과평가 지표 개발과 동시에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가가 수행했다. 내·외부 평가단의 구성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 달성을 이뤄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매일식품,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공장 준공

약 400억 투자 장류 조미식품 제조공장 준공... 40여명 고용창출

매일식품(주)(대표이사 오상호)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장류·조미식품 제조공장을 새로 짓고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송재원 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부장, 오상호 매일식품(주) 대표와 기업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9일 시에 따르면 매일식품(주) 익산

공장은 2018년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6,735㎡(8,087평) 부지에 약 400억원 상당을 투입해 공장 준공을 마쳤고, 약 40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본격 가동한다.

익산공장은 글로벌시장을 겨냥해 간장메이스 조미 및 향미분말 식품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투자되었고, 현재 20여개국의 수출을 50여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경제불안 등 어

려운 상황속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해주신 오상호 대표와 기업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매일식품이 100년 후에도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 본사를 둔 매일식품(주)은 76년의 역사를 가진 장류 전문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허를 보유중이며 국내 20여 식품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군장대 지역명사 초청 특강

강임준 군산시장은 28일 군장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직업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군장대학교 실버복지상담과 1, 2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유래, 가치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함께 자원봉사활동 동영상 시청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공유했다.

실버복지상담과는 30세 이상 야간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실버복지상담사 양성과 실버복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2년 과정의 학과다.

강 시장은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은 이웃과 소통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공동아리인 '헬니스봉사단' 회원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최고

의 가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강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은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되고, 자원봉사 이용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이웃과 나누는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